



동방경제포럼의뉴스

2017-동방경제포럼 메인 행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 바툴가 몽고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한 포럼 총회였다. 총회에서는 '극동 -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면서'라는 주제를 논의했다. (리아 노보스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2017-동방경제포럼에서 극동의 발전은 러시아의 경쟁력 제고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빠른 성장, 지역 업그레이드는 우리의 우선과제 중 하나로서 러시아, 러시아 경제, 인적자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전략과제입니다."라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밝혔다. 또한 지난 몇 년 동안 정부는 많은 재정자원 및 운영자원을 극동에 집중시켰으며, 2012년 APEC 정상회담 개최가 지역발전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푸틴 대통령이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또한 극동의 경제발전 성과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 3년동안 극동의 산업생산량 증가는 러시아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바로8.6%의 산업생산량 성장을 보였습니다. 더불어서 지역 총 생산량은 4.2% 증가했습니다."라고 푸틴 대통령이 말했다. 또한 1천억 루블 이상의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법인세 혜택 적용기간이 10년에서 19년으로 연장되었다고 대통령은 강조했다. (타스)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동방경제포럼 총회에서 한국은 러시아와의 협력 가속화에 관심이 있다고 밝혔다. (타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동방경제포럼 총회에서 지난 1년간 러일 관계는 지난 70년간 이루어내지 못한 일들을 성공시켰다고 밝혔다. (타스)

동방경제포럼 총회에서 바틀가 몽골 대통령은 극동과의 협력발전은 몽골의 수출품 해운 운송 가능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인테르팍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동방경제포럼 일환으로 국가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번 회의 의제는 극동 사회경제 종합발전에 대한 안건들이었다. (리아 노보스티)

푸틴 대통령은 미클루세프스키 연해주 주지사와의 회담을 가졌다. 이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전반적인 연해주 상황에 대해 협의했으며, 러시아연방 지역들의 현황파악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했다. (타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왕양 중국 부총리와 회담을 가졌으며, 회담에서 중러 협력 전망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또한 푸틴 대통령은 왕양 부총리에게 우호 훈장 수여를 지시했다. (리아 노보스티)

동방경제포럼의 일환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아시아 재계 대표들과 만남을 가졌다. 재계 대표들은 푸틴 대통령에게 극동에서의 자사 프로젝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했으며, 대통령은 극동에서 외국기업들 사업과 관련한 일련의 지시를 내렸다. (리아 노보스티)

블라디미르 대통령은 바틀가 몽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바틀가 대통령은 국경 인접지역 협력발전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타스)

동방경제포럼의 일환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있었다. 이 회담에서 아베 일본총리는 러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 2차 세계대전 종식 때 체결되지 않은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밝혔다.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

극동경제포럼의 일환으로 '러시아 24'채널과 발다이 토론클럽간의 '러시아의 동방정책-결과와 새로운 목표'라는 주제로 TV화상토론이 열렸다. 토론 참석자들은 아태지역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 전망 및 극동으로의 젊은이 유치에 대해 협의했다. (베스티.루)

'러시아-일본'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중에 오레쉬킨 러시아 경제개발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양국의 무역량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5% 증가해 80억달러에 달했다고 말했다. (리아 노보스티)

동방경제포럼의 일환으로 '러시아 -중국' 비즈니스 다이얼로그가 열렸다. 왕양 중국 부총리는 중국은 중러 공동투자펀드를 늘릴 준비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리아 노보스티)

동방경제포럼의 일환으로 진행된 '러시아 -대한민국' 비즈니스 다이얼로그에서 쇼힌 러시아 상공협회 회장은 한국은 과학집약 분야에서 러시아 기업들의 주요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타스)

러시아 직접투자재단과 일본 국제협력은행은 러일투자기금을 론칭했다. 이 기금의 일환으로 현재 보건, 화학, 금속 및 서비스 분야 프로젝트들이 개발 중에 있다. (타스)

2017-2021년동안 루스기드로는 극동에서 2250억루블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솔기노프 회장이 동방경제포럼에서 밝혔다. 루스기드로는 극동지역에서 에너지 시설 관련 몇 개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타스)

동방경제포럼에서 가스프롬과 일본 미쓰이 회사는 중저온 액화가스분야 협력에 대한 일반 합의서를 체결했다. (타스)

신형 제지 생산공장을 하바로프스크주 아므르스크에 건설 계획이며, 투자액은 6억달러에 달할 것이다. (타스)

하바로프스크 주정부와 RFP 회사는 콤소몰스크 선도개발구역 내 펄릿연료 생산 공장 건설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 프로젝트에 대한 개인투자액은 약 15억 루블에 달하며 약 5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다. (타스)

'천연그대로의 러시아' 사진 전시회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렸다. 이번 전시회에는 150여개의 사진이 출품되었으며, 출품된 사진들은 러시아의 외진 곳이나 동떨어진 곳의 자연을 담고 있다. 동방경제포럼 이후 연해주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동 전시회를 관람할 수 있다. (타스)

극동 소식

2018년 1월1일부터 전자비자를 가지고 캄차트카와 사할린를 통해 러시아에 입국할 수 있다고 동방경제포럼 총회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밝혔다. (타스)

10만명의 러시아인이 극동 헥타르를 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2만8천개의 토지제공계약이 체결되었다. 동 프로그램의 다음 단계는 신청서 추가 확대 및 제공받은 토지를 실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카차에프 극동개발부 차관이 밝혔다. (타스)

국가위원회 지시에 따라 러시아 정부는 극동지역 인프라 회사들에 적용될 전기, 철도운송 적용 장기간 요율 수립 작업을 하고 있다고 노박 에너지장관이 밝혔다. (리아 노보스티)

교육과학부는 극동에 러시아 주요 대학 캠퍼스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바실리에바 교육과학부 장관이 밝혔다. 푸틴 대통령이 이전에 교육기관 극동 캠퍼스 오픈을 제안한 바 있다. (타스)

로스세티는 루스키 섬에 스마트 그리드 개발 및 극동과 아태지역 국가들을 연결하는 에너지 다리 개발을 담당할 설계센터를 세울 것이라고 페투호프 로스세티 서비스 개발 및 판매사 부사장이 밝혔다. (타스)

페트로파블로프스크-캄차크스크 공항 내 신규 터미널 건설이 2020년까지 끝날 예정이다. 이를 위해 70억 루블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일류힌 캄차트스크 주지사가 밝혔다. (리아 노보스티)

캄차카 지방과 쿠릴섬간 운행될 화물선 건조를 위해 9억루블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동방경제포럼에서 소콜로프 교통부 장관이 밝혔다. (타스)

참고정보:

동방경제포럼-2017의주최자인'로스콩그레스' 재단은회의, 전시회등행사의최대주최단체이다.

'로스콩그레스' 재단은2007년도에회의, 전시회등사회행사를개최하며수행함으로써 러시아이미지를강화하고경제적잠재력을발전하는데기여할목적으로설립된것이다. 재단은이행사들의내용부분을형성시키며, 단체들과회사들에전문적컨설팅및정보지원을제공하며러시아및전세계경제적일정의제문제를전면적으로연구하며분석하며조명하고있다.

오늘재단의연간일정은몬테비데오부터블라디보스토크까지개최되고있는행사들을포함함으로써한마당에서세계적인비즈니스리더들, 전문가들, 언론인들, 정권대표자들을모으며새로운구상과프로젝트를논의하며추진하기위해서최선의조건을마련하며사회적기업과자선프로젝트를형성시키는데기여할수있게해주는것이다.